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다. 말 잘하는 것을 타고 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말을 잘하는 비결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냥 신문이나 서적 등에서 우직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직하게 수집'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주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라 어떤 사건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특히 정치에 대한 글은 더 그렇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내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신문을 보더라도 큰 제목의 기사는 제목만 읽고 작은 제목의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치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사는 큰 제목을 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는 제목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많지 않다. 그러한 기사가 나온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 보관한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얼마든지 텍스트 파일이나 pdf 파일로 스크랩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으려면 신문은 앞에서보다는 뒤에서부터 보는 것이 큰 제목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책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꼭 사야할 책이 없더라도



### 말을 잘하는 비결



서점에는 자주 들르라. 그렇지만 실력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일부분이다. 책을 사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서점에서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책에 대한 리뷰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 텍스트 파일로 구할 수가 있다면 활용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 모았다고 하자.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만으로는 안 된다. 같은 주제를 아이들에게 어른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직

접 설명을 해보자. 해봐야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제 발표 어땠어요?"라고 물으면 대개는 겉치레로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쯤 지난 후에 물어보는 것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솔직한 지적을 받았을 때 절대 변명해서는 안 된다. 그 이후부터는 지적해주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린 '에~', '저기~', '어~'를 남발(濫發)함으로 인하여 핵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습관을 단 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하나씩 고쳐 가면 어느새 신기할 정도로

좋아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침착하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공부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가끔 톤을 바꾼다. 답답하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기도 한다.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은 '어라, 무슨 일이지?' 하고 바짝 긴장한다. 이것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화술인 것이다.

날려 쓴 글씨는 웬지 무성의하게 보일 듯이 글씨를 쓰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써야 하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다. 정성을 들이면 된다. 진실을 담으면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눈이나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 하라. 그래야 나의 말에 공감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말을 잘하게 되는 비결이다. 대통령도 연설 시에는 자막을 보면서 한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조금 어색한 점도 있지만 말의 실수는 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연설 시에 자막을 띄워주는 것은 상례화 되어 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언변에 도취되어버리면 성장의 여지는 없다.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나 남을 비하하는 말은, 불쾌감만 불러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자연스럽게 가장 나다운 개성적인 화법(話法)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발표해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겸허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 마귀의 최고 무기는 무엇인가 What is Satan's great weapon?

魔鬼の最高の武器は何ですか

● 마귀의 최고 무기는 모방력이다.

Satan's great weapon is the power of imitation.

魔鬼の最高の武器は模倣の力です.

● 마귀는 창조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태초부터 모방력을 가지고 있었다.

Although Satan didn't have the power of creation, he had the power of imitation from the beginning instead.

魔鬼は創造の力を持てなかったが、代わりに宇宙の初めから模倣の力を持てました.

● 마귀는 뛰어난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은 대단한 모방자였다.

Satan was a great imitator and captured God by his imitative power.

魔鬼は優れた模倣の力で神様を生け捕りにしたすごい模倣者でした.

● 하늘나라 에덴동산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마귀는 6천 년 전 아담과 이브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났으며 아담과 이브가 이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였다.

Satan, who failed to occupy the Kingdom of Heaven, appeared before Eve and Adam in the likeness of God about 6,000 years ago. The moment they looked at Satan, they were captured by the Spirit of Satan.

天國、「エデンの園」を占めるのに失敗した魔鬼は、6千年前、アダムとイブの前に神様の姿で偽装して現れたし、アダムとイブがこれを見る瞬間、魔鬼の靈に占められました.\*

### 속담 속의 영생학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은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승리제단에서는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자유율법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려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결점을 자신의 허물이나 결점으로 여겨 자신을 나무라야지 상대를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남의 잘못을 따지기가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자신이 구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또한 남의 잘못은 산처럼 크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눈속에 들보처럼 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티끌처럼 작은 남의 잘못은 잘 본다는 말도 있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만날 때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는 승리자 하나님께서 35 년간 외치는 말씀 이시다. 인간은 하나이므로 결국 누구든지 내 몸이라는 당연한 논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이므로 '나' 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나와 너를 구별하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만 나무라고 있다. 이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잘못만 보고 있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마음의 문제이다. 똥 묻은 마음이나 겨 묻은 마음이나 다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그리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일이 없어질 것이다.

요즘을 한국의 이세돌 9단과 함께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사피언스>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조선일보 3월 16일자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해답은 결국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신(神)의 영역, 마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몸과 뇌 연구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는 것처럼 마음의 연구에도 공들여야 한다. 인간이 끝까지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

온전한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자유로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비결이 오직 마음에 있다고 35년 전부터 외치는 이곳! 알파고의 인공지능 뉴스 속에서 승리제단의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신화탄생을 느낀다면 지나친 낙관론일까?\*

참고문헌 기사

#### 우리말 바꾸기

#### 조사의 오류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들을 말한다. 종류로는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있다. 다음은 잘못 사용된 조사들이다. 바르게 고쳐보자.

①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사상을 상대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다.

'상대자한테'는 '상대자에게'로 바꾸어야 한다. '-한테'는 구어체에 사용되는 조사이고, '-에게'는 낙착점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최선을 다할 따름이 중요하다.

'따름'은 '-뿐'과 함께 서술격 조사 '-이다(아니다)'와 결합되는데, 주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장이 되었다.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하늘을만 바라보고 살 수야 없지 않은가?

격조사와 보조사의 연결 순서가 잘못되었다. 즉, 격조사인 '을'이

보조사 '만' 뒤에 들어가야 옳다. 이런 실수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어의 문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일본에게 패하였다./ 일본 선수에 패하였다.

유정 체언의 여격에는 '-에게'를, 부정 체언의 여격에는 '-에'를 써야 한다. 즉, '일본에 패하였다.'와 '일본 선수에게 패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⑤ 청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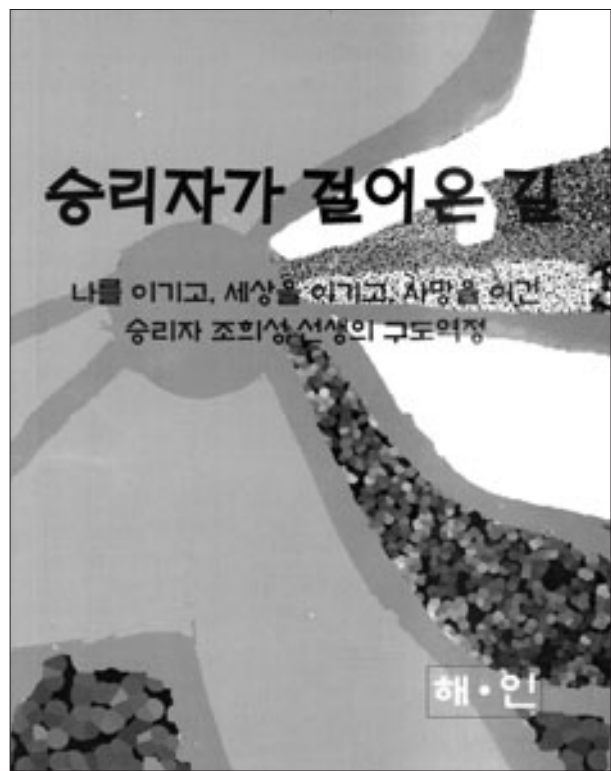
'from'의 번역투인 '-으로부터'보다 '-에게'가 정확하다.

⑥ 원서 접수는 5일까지 마감한다.

'까지'를 오묘한 것이다. 즉, '5일에 마감한다.'나 '5일까지이다.' 이렇게 바꾸어야 옳은 표현이 된다.\*

이승우 기자

#### 신간 안내



정가: 2,000원

## 승리자가 걸어온 길

####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걸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시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